

1965년 '광주일보 퀴즈 신동' 민아영 씨

“퀴즈 상금으로 중학 입학금 냈죠”

“어렸을 때 광주일보 퀴즈를 풀어 놓았는데 벌써 창간 55주년이 됐고, 철부지 소녀였던 저 또한 이쯤이 됐네요.”

지난 1965년 광주일보(당시 전남일보)의 독자 퀴즈 상금으로 중학교 입학금을 냈던 '광주의 퀴즈 신동' 열 살 꼬마 소녀가 세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중년이 됐다.

민아영(여·52·서울시 서초구)씨가 광주일보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버지의 남다른 신문 사랑 때문.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 '민아영'을 경영했던 아버지 민중기(2003년 사망, 당시 79세)씨는 광주일보 창간 때부터 발행된 신문을 모두 모아볼 정도로 애독자였다.

민씨는 다섯 살 많은 오빠(57·광주시 북구 동림동)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을 때마다 '부레옥'

애독자였던 아버지 영향

신문 통해 세상 배웠어요

에서 '아이스 깨끼'를 사들고 아버지의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는 항상 광주일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문을 뒤적이던 소녀의 눈에 당시 인기리에 게재되던 퀴즈가 속 들어왔다. 민씨는 응모권을 오래나 우편엽서에 올려붙인 뒤 답을 적어 신문사로 보냈다. 처음 보냈는데 당첨돼 3천원의 상금을 받는 행운을 안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64년 봄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빈칸 메우기'가 인기였다. 상금으로 '우리말 국어사전'을 샀다.

다음 목표는 '거금'(巨金) 1만원이 걸린 '1965년 2월10일 광주일보 속간 13주년 퀴즈'. 쌀 한 가마니가 1천300원 하던 시절이었다. 문제는 여성 세 명의 남편 직업을 맞추는 것이었다. 힌트는 다섯 가지가 주어졌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간 뒤 민씨 남편은 친척집을 돌려 광주일보를 찾았다. 응모권을 모아



지난 1965년 광주일보 퀴즈에 당첨돼 받은 상금 1만원으로 중앙여중 등록금을 냈던 민아영 씨. 민씨가 지난 16일 본사 자료실을 찾아와 40년 전 자신의 사연이 게재된 광주일보를 펼쳐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업서를 많이 보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신문 20부를 모아 오빠가 17장, 민씨는 3장을 오려 보냈는데, 민씨가 당첨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열 살 소녀가 퀴즈 왕 되다’는 기사가 사회면 특으로 나간 다음날, 민씨는 요즘 뜨는 영화배우 문근영처럼 ‘국민 여동생’이 돼 있었다. 열 살 꼬마 소녀가 답을 찾아 응모해 1천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거금을 거머쥐었으니, 그럴 수밖에.

상금 총액은 3천원 2번, 1만원 1번 등 모두 1만6천원.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인지라 ‘도와 달라’고 쫓아다니는 스토키가 생길 만큼 유병세를 치렀다.

“어느 날 아침부터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집으로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이러다가 유과당하는 것 아니냐며 엄마가 한동안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광주 제일은행’에 상금을 저축해두었다가 2년 뒤 중앙여중 입학금

이젠 인터넷 광주일보로

서울서 고향소식 접해요

등으로 썼다.

민씨는 중앙여고를 졸업한 뒤 74년 서울의 대학에 진학한 후 졸업 서울에서만 살았다. 하지만 광주일보에 대한 추억은 오늘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 큰 딸(29), 작은 딸(28·미술교사), 막내딸(22·연세대 3년)과 함께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를 보며 고향 소식을 쟁긴다.

“너희 시절 고향에 들 때마다 아버지가 모아둔 광주일보를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랜 세월 지역발전을 이끌며 든든하게 고향을 지켜주고 있는 광주일보가 앞으로도 독자와 함께하고, 사랑받는 언론으로 좋은 일 많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씨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담긴 광주일보 복사본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서울로 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5년전 광주·전남은

55년 전 광주일보가 창간할 당시, 광주·전남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재건의 골부림이 한창이었다. 그해 2월9일야 전쟁으로 끊겼던 운암발전소~광주 간 송전선 복구와 완공돼 광주시내에는 호롱불 신세를 면했다.

이즈음 쌀값이 한 되에 7천400원으로 폭등해 밥을 굶는 지역민들이 7만 명에 이르렀고, 새벽부터 아랑

쌀값 폭등 지역민 7만여명 굶어
광주시 예산 12억...다방은 10곳

이(술 찌꺼기)를 구하기 위해 장사진을 쳤다. 70 노파도 초저녁부터 양조장 앞에서 철야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세상이었다. 당국은 4월부터 영세농민 1인당 1홉의 쌀 배급을 시작했다.

무등산·백야산·장성 폭두재 등

지에서 공비의 출몰도 잦았고, 광주·목포에선 권총강도가 날뛰었다. 폭풍우로 10억원의 재산피해(6월5일)가 났고, 뇌염이 창궐해 각급 학교가 임시휴교(9월10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극단 '일련

단상'은 다시 문을 연 광주 '시민관'에서 공연을 시작(3월29일)했다. 5개 단과대학을 통합한 국립 전남대가 탄생(4월1일)했고, 광주고등학교와 검정제도 개설했다(4월1일). 지방자치제 도입 후 첫 지방선거(4월25일)도 치렀다. 전남도는 외화획득을 위해 350만 명에 골 양식을 추수(4월12일)했다.

광주시 전체 예산은 12억원, 시내 다방은 10곳이던 시절이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스승의 날’ 금품받은 교장

정직 3개월 첫 중징계

‘스승의 날’ 등에 금품을 받은 교장 <본보 3월29일자 8면>에게 광주·전남에서 첫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육청은 이번 중징계 조치가 올 ‘스승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학부모와 교직원사회에 어떤 과정을 밟을 지 예외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스승의 날’과 명절에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스승의 날’과 추석·설에 현금과 상품권·주유권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장의 금품수수 행위는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에 고발, 드러나게 됐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수입쌀 포대같이’ 농민들 화났다

장흥군농민회 현장 적발

쌀값 하락에 화난 농민들이 수입쌀 불법 유통 적발에 나섰다. 장흥군 농민회는 19일 지역 내 모 양계장에서 수입쌀 ‘포대 같이’ 정황을 포착, 경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농민회에 따르면 이 양계장에는 밥쌀용 중국산 쌀을 국산 쌀과 섞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20kg 들이 쌀 35포대가 있었고, 인근 소각장에도 빈 수입쌀 포대 50여 장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근처에 있던 화물차에서는 10kg 들이 수입쌀 970여 포대와 작업 인

부 10여 명이 있었다고 농민회 측은 전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20kg 들이 포대에는 아무런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농민회 관계자는 “수입쌀이 나돌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포대 같이’가 의심되는 지역들을 차례로 둘러보던 중 현장을 잡았다”며 “양계장을 드나든 화물차가 상당 기간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쌀을 실어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 받은 경찰과 농관원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소록교 붕괴’ 5명 구속영장 신청

7명은 불구속 입건

고흥 ‘소록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고흥경찰은 19일 교량 설계 및 감리 등을 잘못, 5명을 송지게 하고 7명을 부상케 한 시공사와 설계사 관계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교량 구조계산을 맡은 윤리마 구조설계 사무소 정모(45)씨 ▲시공사 현대건설 설계팀 김모(50) 팀장 ▲감리 담당 수성 엔지니어링 김모(51)씨 ▲동바리(支保工) 시공사 삼원엔탈 유모(35) 과장 ▲현대건설 현장소장 조모(54)씨 등이다.

다리 구조설계를 맡은 정씨는 설계 과정에서 상판의 하중을 잘못 계산해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고 설계와 감리를 맡은 김 팀장과 김씨, 시공책임자인 현장 소장 조씨는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못한 혐의다. 유씨는 거꾸집을 때반치는 동바리를 부실 시공한 혐의다. 경찰은 또 현대건설 안전관리 책임자 송모(41)씨 등 안전관리를 맡은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 김모(55) 연락관을 참고인 자격 사무소 정모(45)씨 ▲시공사 현대건설 설계팀 김모(50) 팀장 ▲감리 담당 수성 엔지니어링 김모(51)씨 ▲동바리(支保工) 시공사 삼원엔탈 유모(35) 과장 ▲현대건설 현장소장 조모(54)씨 등이다.

한편 ‘소록교’(연장 270m·사업비 108억여원)는 고흥 금산면 대흥리와 도양읍 소록리를 잇는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의 육상 구간이며, 오는 6월 30일 완공 예정(공정률 52.9%)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니원침 (7108) 김종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truction Chemicals) products, including DS건설(주) and (주)본드나라.

동거너 핀잔에 화김 폭파 위험 소동

쌍다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다”며 핀잔을 주는 동거녀에게 “집안의 LP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50대가 현주건 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C(50)씨는 19일 새벽 3시에 북구 오치동 자신의 집 2층 거실에 시너 1.5L를 뿌리고 LP 가스 2통의 잠금장치를 풀어 놓은 채 동거너 P모(여·43)씨에게 “우리 함께 죽자”고 협박했다는 것.

○C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동거너를 인질로 잡고 “집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며 진입을 막는 등 3시간 여 동안 소동을 벌였는데, “그 여자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나만 탓하자 화김에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한국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만약 가스통에 불이 붙었다면 반경 20m 내의 인근 주택까지 큰 피해를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 /이종형 기자 galee@



유통사업부 HD22@250-5714 철근공사사업부 HD22@250-5791(1820)-11EA



- 한국 제1의 철근 유통회사
- 연간판매량 300,000 TON
- 조달청 지정 공급하차장
- 한국철강(주) 광주하차장
- 동력제강(주) 광주하차장

- 한국 제1의 최대규모 가공공장
- 연간 가공생산량 95,000TON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보유 (전남92-10-118호)

- 새한은 대한주철공사 주택연구소와 지속적인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철근가공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D22@250-5791(1820)-11EA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늘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의 영원한 파트너- 새한철강

주 새한철강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1-4(하남공단 3차단지내 9번도로)
- TEL. (062)958-9700(대) FAX. (062)952-5599
- http://www.saehansteel.co.kr
- 서울지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2-6 현대ESA 2차 205호
- TEL. (02)597-5701 FAX. (02)597-5897